

분체도료시장 판도변화 예고

LG화학 · 건설화학 등 생산확대 ... 가전용 등 M/S 제고경쟁 치열

심한 수급불균형에 시달려온 국내 분체도료시장이 LG화학의 신규진입과 증설 등으로 시장판도변화가 예고되는 등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과열경쟁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업계의 신증설계획이 95년들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따른 수급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분체도료 판매추이 (단위 : M/T)			
구 분	1994	1995(추정)	증감률
고려화학	5,690	6,700	17.7
건설화학	1,700	3,600	111.7
대한IPK	5,300	6,000	13.2
조광페인트	2,300	2,700	17.3
현대페인트	1,500	1,700	13.3
LG화학	150	1,500	900
합 계	16,910	22,000	30.1

자료) CRI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국내 분체도료시장은 생산기준 2만2000여톤으로 94년 1만6910톤에 비해 30.1%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려화학이 6700여톤으로 94년 5690톤에 비해 1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비롯 설비증설에 나선 건설화학이 3600여톤으로 94년 1700톤에 비해 111.7%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 IPK가 6000여톤으로 94년 5300톤에 비해 13.2%, 조광페인트가 2700여톤으로 94년 2300톤에 비해 17.3%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현대페인트는 95년 1700여톤으로 94년 1500톤에 비해 13.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변화의 주요 핵심 LG화

학은 94년 150톤에 이어 95년 1500여톤을 생산, LG전자 등 연간 2500톤이상의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장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하반기 과열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여부가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시장점유율 변화가 가전제품용을 필두로 점차 이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우기 강세를 보여왔던 가전제품용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94년 15%의 수요증가가 95년들어 10%내외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등 94년까지 타이트한 공급상황이 생산규모의 대폭적인 증대에 따른 시장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하반기 시장과열이 이뤄지면서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저가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최근 원료가 상승폭을 반영, 안정적인 수요선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기업에서 오히려 10%정도의 가격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분체도료가격은 폴리우레탄이 Kg당 5000~6000원, 폴리에스테르가 4500~5000원, 에폭시와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가 3600~44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5/6/19>